

보도시점 2024. 9. 25.(수) 11:00
9. 26.(목) 조간

배포 2024. 9. 25.(수) 09:00

간척지,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 간척지 신규 임대시 벼재배 금지하고, 2030년까지 일반벼 재배면적을 현재 6.8천ha에서 0ha로 축소
-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감안시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 재배로 전환
- 스마트팜, 첨단농업연구, 육종·채종 등 활용 확대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새만금 7-1공구 800ha 면적에 법인당 100ha 이상의 대규모 복합곡물전문 생산단지 시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18→’23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한 한편, 간척지 임대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37ha로 국내 일반법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영농 규모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ha), 영산강(7,823ha), 고흥(1,865ha) 등 13개 간척지 3만2천ha(만m²)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①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②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③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④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⑤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이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식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현재 6.8천ha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ha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벼를 대체하여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맞춘 품종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5~’29)’도 추진한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과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발전사업의 운영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작 중심으로 조성하던 간척지 기반조성 방식을 용지 수요에 맞게 전환한다. 이를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의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한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

〈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 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기준 52ha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29년까지 112ha를 추가 조성, 164ha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간척지 스마트팜 현황('23): 고흥 33ha, 화옹 15ha, 이원 4ha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식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총 800ha 규모(법인당 100ha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 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생산단지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탄소 농업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ha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하여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 산업혁신클러스터('26~'32)를 조성하는 한편, 고성능의 농기계 개발과 농업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27년까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100ha 규모로 조성하여 첨단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대도시 근교인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간척지의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휴양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9개 간척지*에 조성하고,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

* 9개 간척지: 시화, 화옹, 이원, 남포, 삼산, 고흥, 영산강(3-1, 3-2), 새만금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문

별첨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요약)」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농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재천	(044-201-1851)
		담당자	사무관	박영완	(044-201-186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비 전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

-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수출 거점 -

목 표

- ◇ 간척지 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로 자급도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과제

1. 간척지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 ① **벼 외 다양한 작물 재배여건 조성**
 - 간척지 실태조사
 - 용도별 용·배수체계 개선
 - 재배작물 집산화
- ② **다양한 작물 생산 유도**
 - 간척지의 일반벼 재배 제한
 - 가공·수출용 장립종쌀 생산여건 조성
 - 친환경·저탄소 농업 단지 운영
 - 타작물 의무 재배면적 확대
 - 간척지 적합 작물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2. 간척지 다각적 활용 촉진

- ① **토지 공급방식 다양화**
 - 임대 원칙, 영구시설 부지 매각 허용
 - 용지 수요 맞춤형 기반조성
- ② **토지 활용도 제고**
 - 영농형 태양광 시범 도입, 농업인·기업 상생협력,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생태·관광 자원화

3.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 ① **농업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첨단 시설원에 및 스마트 노지재배 확대
 - 수출지향형 대규모 농업특화단지 운영
 -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조성
 - 생산성·경쟁력 높은 영농 규모화 촉진
- ② **친환경 축산·어업 활성화**
 - 경축순환형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
- ③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 우수 종자 개발·보급 및 육종·채종
 - 첨단농업기술 개발 및 실증연구
 - 소득(기능성·경관)작물 재배 확대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① **농어촌 관광휴양·도농교류 활성화**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 ②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
 - 농산물 판매·가공·관광 등 자원 융복합화

5. 간척지 효율적·체계적 관리

- ① 토지수요 맞춤형 용도 설정·배치 ② 주민수용성 확보 ③ 간척지 운영 평가·환류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67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1. 대상면적 : 시화지구 등 13지구 31,786ha

2. 지구별 활용방향

지구명	활 용 방 향	지구명	활 용 방 향
시화	복합곡물, 원예, 친환경축산, 청단농업시험	군내	복합곡물, 친환경수산
화옹	복합곡물, 원예, 친환경축산, 종자생명	보전	복합곡물, 친환경수산
석문	친환경축산, 복합곡물, 원예, 친환경수산	영산강 II	복합곡물
이원	원예, 복합곡물, 친환경축산	영산강III-1	복합곡물, 원예, 친환경축산, 친환경수산
남포	복합곡물, 친환경축산	영산강III-2	복합곡물, 원예, 친환경축산
삼산	원예, 복합곡물	새만금	첨단복합농업단지
고흥	복합곡물, 친환경축산, 원예		

3. 지구별 용도별 면적

지구명	합계 (ha)	간척지 농어업적 활용(ha)									
		원예 용지	종자 생명 용지	친환경 축산 용지	지원 시설 용지	관광 농어업 용지	복합 곡물 용지	생태 환경 용지	첨단농업 시험 용지	기능성 작물 용지	친환경 수산물 용지
계	31,786	5,916	1,349	5,107	956	2,016	12,206	1,610	832	844	950
비율(%)	100	18.6	4.2	16.1	3.0	6.3	38.4	5.1	2.6	2.7	3.0
시화	3,636	584	100	510	102	136	1,313	766	50	30	45
화옹	4,482	638	350	509	122	489	1,555	692	71	41	15
석문	1,895	180	150	839	75	-	364	117	-	-	170
이원	837	273	-	200	50	12	242	-	-	-	60
남포	825	64	50	250	5	18	381	-	10	-	47
삼산	282	78	20	42	23	20	44	35	-	-	20
고흥	1,899	139	100	500	18	117	928	-	29	-	68
군내	464	-	-	-	-	-	410	-	-	-	54
보전	213	-	-	-	-	-	187	-	-	-	26
영산강 II	402	-	-	-	-	-	402	-	-	-	-
영산강III-1	3,482	960	169	602	126	36	967	-	252	170	200
영산강III-2	3,939	1,060	150	500	135	40	1,759	-	-	50	245
새만금	9,430	1,940	260	1,155	300	1,148	3,654	-	420	553	-

※ 세부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정책자료'에서 열람 가능